

## ‘총장 직선제 폐지’ 전남대 학칙 개정

목포대도 7일 직선 폐지 학칙 마련

전남대학교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면〉

전남대는 지난 3일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지난 1일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 목포대를 포함해 전국 38개 국립대 모두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대의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학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이 개정안을 5일간 공고해 학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심의 위원회·평의원회·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김윤수 총장은 이날 교직원들에게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학칙개정을 발의하며’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대학경영의 책임자로서 눈앞의 위

험을 피하지 못한 채 대학이 파폐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며 “현실에 굴복해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해도 대학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다면 총장으로서 빼아픈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털어놨다. 김 총장은 또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무너진 대학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서너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직선제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전남대 평의원회가 최근 8일간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0.1%가 직선제 유지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9.9%였다.

이와 함께 목포대도 지난 3월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결과, 62.1%가 직선제 유지를 지지했으나 대학측은 오는 7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한 뒤, 이달 내에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37.7도 폭염

51년 만에 8월 최고… 내일 입주, 더위는 계속

### 닭 4만마리 폐사

입주(立秋·7일)를 이틀 앞둔 5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7.7도 까지 치솟으면서 51년 만에 8월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이는 198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4번째로 높은 기온이다.

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영광에서 닭이 집단 폐사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는 이날 오후 2시29분에 중전 8월 중 최고기온(1951년 37.6도)을 뛰어 넘는 37.7도를 기록했다. 진도는 33.6도로 기상관측 이례 최고 기온을 보였으며, 영광도 35.9도로 8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공식 관측기록인 광주 지역별 상세관측장비(AWS)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용곡동(39.5도)이 40도에 육박했으며, 서구 풍암동 38.6도, 북구 오룡동 38.2도, 동구

서석동 36.9도, 용연동 29.7도 등으로 관측됐다.

5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서 초당 17m/s의 속도로 북서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하이쿠이의 영향으로 11일 전남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여 일 가까이 광주·전남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는 태풍이 지나고 난 뒤 다소 수그러질 전망이다. 하지만 더위는 9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6일 남해안에서는 역과도인 이안류(離岸流)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해수욕장 피서객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지난 3일 영광군 영광읍, 군서면, 법성면의 양계장 3곳에서 닭 4만100여마리가 폐사해 전남도가 역학 조사에 나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렇게 좋을수가”

한국대표팀이 4일(현지시각) 영국 카디프의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8강전 영국과의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선 기성용이 슛을 시키며 5-4로 승리를 확정짓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축구, 영국 꺾고 4강… 진종오 사격 2관왕

연장 접전 끝 1-1… 승부차기서 5-4 승리

관련기사 2·3·14·15면



한국 축구대표팀  
이 64년만에 올림픽  
4강 진출의 꿈을 이  
뤘다.

홍명보 감독이 이

끄는 축구대표팀은 4일(현지시각)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경기장에서 열린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8강전에서 개최국 영국을 승부차기 끝으로 4강에 꺾였다.

사상 첫 올림픽 4강 진출을 이룬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8일 오전 3시34분 난적 브라질을 상대로 결승 진출을 노린다.

태극전사들의 정신력과 조직력이 돋보인 승리였다.

한국은 열광적인 홈 관중을 등에

엎은 영국 연합팀과의 경기에서 각 오프 5분 만에 김창수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전반 29분 지동원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한국은 전반 33분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전반 40분 애매한 판정으로 다시 페널티킥을 내주며 역전 위기를 맞았다. 골키퍼 정성룡이 극적으로 골을 막아내며 전반전은 1-1로 끝났다.

하지만 후반 9분 정성룡마저 부상을 당하자 한국은 두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이후 양팀의 팽팽한 공방전이 계속됐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팀은 연장 승부로 접어들었다.

부상이라는 변수에 일찌감치 교체카드를 사용했던 한국은 체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연장전을 실점 없이 막으며 승부차기로 돌입했다.

영국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양팀은 실족 없이 골을 넣으며 4-4로 맞섰다. 숨막히는 승부에서 골키퍼 이범영이 몸을 날려 영국의 5번째 키커 키카 대니얼 스터리지의 슈팅을 막아냈다.

한국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기성용의 골이 이어지면서 120분의 대접전은 태극전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김예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사격의 간판 진종오가 5일 오후(한국시각) 영국 런던 그리니치파크 왕립 포병대 기지의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영래 銀… 기보배 金·최은숙 銀·이용대 銅

2012 런던 올림픽 사격 남자 50m  
권총에서 진종오가 올림픽 2연패와 2

광주시청의 기보배는 지난 2일(이  
하 현지시각) 여자궁궁 개인전 결승

에서 슛오프 끝에 멕시코의 아이다  
로민을 6-5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

었다.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 우승까

지 차지하며 이번 대회 한국의 첫 2관

왕이 됐다.

양궁 대표팀의 밀형 오진혁도 3일

후루카와 다카하루(일본)를 세트스

코어 7-1로 꺾고 남자 개인전에서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의 첫 남자

개인전 우승이다.

펜싱의 메달 행진도 계속됐다. 한

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은 3일 뿐

마나아를 45-26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펜싱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구본길·김정환·오은석·원우영은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광주 서구청의 최은숙은 여자 펜싱 단체전 첫 은메달에 함께했다. 최은숙·신아람·정효정·최인정으로 꾸려진 여자 대표팀은 4일 여자 예페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25-39로 졌다. 하지만 세계랭킹 10위인 한국은 루마니아(1위), 미국(5위), 중국(3위) 등 생생한 강호들을 상대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 이용대와 절재성은 남자 복식에서 말레이시아팀을 2-0으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양궁 미녀궁사 기보배 한국 첫 2관왕 “명중” 금빛 신화가 되다!

기보배 선수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세계로 병원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로 병원  
SEGYERO HOSPITAL

세계로건강증진센터  
SEGYERO Health Promotion Center  
2012. 8. 11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기념행사  
확장이전